

2027
1st
ISLAND
BIENNALE

연결과 흐름,
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물결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공식 파트너십 제안서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



“섬은 움직인다.
신비의 섬 예술의 품으로”

단절과 고립의 공간이었던
섬이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됩니다.
국내 최초 ‘섬비엔날레’가 충청남도 보령 ‘오섬’에서 펼쳐집니다!

2년 주기의 대규모 국제 미술 전시회 '섬비엔날레'

비엔날레(Biennale)는 이탈리아어로 '2년에 한번'이라는 뜻으로,
1895년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초입니다.

섬비엔날레 단계별 운영계획



비전 및 방향성

섬의 자연과 문화를 담는 전시

- + 섬의 자연환경과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 전시
- + 예술가와 주민 협업을 통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섬의 장소성과 이야기를 담은 비엔날레

- + 섬 전체가 전시장이 되는 색다른 경험 제공
- + 섬의 역사를 예술 작품으로 체험하는 전시 공간

비전을 함께 나누는 국제 예술 교류 플랫폼

- + 예술 단체와 지속적 예술 교류 프로그램 추진
- + 국내외 기관 협력 기반으로 한 국제적 확장 모색



예술로 연결되는 보령 '오섬'

“섬은 고립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새로운 탐구의 공간”
충청남도 보령의 '오섬' 이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으로 완성됩니다.

장고도

장고 지형과 갯벌이 있는 어촌의 섬

인구 207명 면적 1.5km²

특징
섬지형이 장구 모양을 띄고 있음



고대도

자연과 역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곳

인구 173명 면적 0.92km²

특징
최초의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곳



효자도

고즈넉한 풍경 속 휴식의 섬

인구 111명 면적 0.9km²

특징
주변 작은 섬의 중심 역할을 수행



삼시도

기암괴석과 송림, 바다가 빚어내는 낭만의 섬

인구 369명 면적 3.8km²

특징
섬지형이 화살이 꽃힌 활(弓) 모양



원산도

해변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여행의 섬

인구 876명 면적 10.28km²

특징
충청남도에서 2번째로 큰 섬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개요

주제

움직이는 섬 :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
(Moving Island : Beyond the Horizon of Event)

기간

2027. 4. 3.(토) ~ 5. 30.(일) / 58일간

장소

원산도 · 고대도 일원(섬문화예술플랫폼, 백사장·빈집·해안가)

주최/주관

 충청남도  보령시 /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CHUNGCHAM ISLAND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예술감독

김성연(Seong-Youn Kim)

부산현대미술관 관장(2017 ~ 2022)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2019 ~ 2025)

대만국립미술관 <Geopoetics> 공동큐레이터(2023)

평창비엔날레 예술총감독(2016 ~ 2017)

대안공간 반디 디렉터(2002 ~ 2011)

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 교수

예상 규모

방문객 27만명, 참여국 24개국, 참여작가 70여 명(팀)



전시 공간

2027 제1회 섬비엔날레는 섬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섬 고유의 인프라를 전시장으로 치환합니다.
핵심 거점이 될 공간들과 예술적 모티브를 공개합니다.

섬문화예술플랫폼 (Moving Gallery)

주전시장으로, 주요 작가들의 미디어,
회화 작품 등 설치 공간

사업비 300억원 * 준공 예정('26. 12.)

규 모 지상 2층 / 면적: 3,989㎡

주 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



야외 (Moving Wind)



유희공간 (Moving House)



고대도 (Moving Mind)



후원·협찬 혜택

개·폐막식

- 개·폐막식 홍보영상 상영
- 개막식 무대 등 로고 노출



도슨트 투어

- VIP 프라이빗 전문 투어
- 단체관람 시 도슨트 지원



프로모션

- 개·폐막식, 리셉션 등 행사 초청
- 입장권, 기념품 등 제공

브랜드 노출

- 옥외배너 등 온·오프라인 광고
- 시설물 활용(계단 등) 로고 노출



맞춤형 파트너십



현금·현물
후원 가능



공식 후원사
지위 부여



기업 맞춤형
공동 프로모션 기획



작품 제작·설치
후원 가능

※ 섬비엔날레 파트너십은 기업 성격과 목표에 맞춰 현금·현물, 작품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 협업이 가능합니다.

후원·협찬사 혜택

후원·협찬 진행 시 후원 규모에 따라 3단계 등급 체계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 10% 한도 내 손금산입(비용처리) 되어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고,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후원 혜택	후원 등급		
		Ocean (1억원 이상)	Coast (5천만원 이상)	Sand (5천만원 미만)
회 장	공식 후원사(official Partner) 지위 부여	O(Main)	O(Official)	O(Supporter)
	비엔날레 로고 활용 기업 홍보물 제작권	O(Main)	O(Official)	O(Supporter)
	기업 홈페이지 내 ‘공식후원사’ 인증 로고 게시권	O(Main)	O(Official)	O(Supporter)
행사노출 (개·폐막식)	개·폐막식공식홍보영상상영권	O(단독)	-	-
	로고 노출권(개막식 무대, 계단 등)	O	O	-
광고 및 브랜드 노출	인쇄물·굿즈(포스터, 리플릿, 후원물품 등)	O	O	O
	온·오프라인 광고(옥외배너, 현수막, 보도자료 등)	O	O	O
	전시장 및 행사장 로고 노출	O	O	-
문 화	VIP 도슨트 프라이빗 투어	O	O	-
	단체관람 도슨트 지원	O	O	O
프로모션	모바일 가이드북 및 디지털 도슨트 브랜딩	O	O	O
	셔틀 / 선박 네이밍	O	O	O
환 대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 초청	O	O	O
	입장권 제공(100, 80, 50)	O	O	O
	공식 후원 협약식 개최	O	O	-

* 협상 시기 및 금액에 따라 제공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협의 가능합니다.

후원·협찬 파트너십 기대효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브랜드 가치확산]

‘섬비엔날레’는 세계의 흐름과 변화를 공유하고,
역사와 사건들이 교차하는 능동적이고 열린 ‘움직이는 플랫폼’입니다.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글로벌 문화 담론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브랜드의 새로운 가치를 제안합니다.



Public Partnership
(공공 파트너십)

- 충청남도·보령시의 안정적 협력체계 구축
- 2033년까지 지속 추진되는 장기 플랫폼
- 행정적 공공성 기반으로 리스크 최소화



Brand Image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지자체 공식 채널 연계 브랜드 이미지 확산
- 언론보도, SNS 등 다각적 매체 활용 홍보
-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이미지 제고



Win-Win Model
(지역상생모델)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반 마련
- 기업ESG 경영과 연계한 상생 플랫폼 구축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민간 협력 확대

귀사의 후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서해안의 거친 파도 속에 숨겨진 섬들의 이야기를
세계적인 예술의 언어로 깨우는
위대한 등대가 됩니다.



문화와 자연의 상생을 이끌어갈 가치 있는 여정,
‘2027 제1회 섬비엔날레’의 위대한 여명은 귀사의 후원에서 시작됩니다!

섬과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 예술 플랫폼
움직이는 섬의 예술 여정에 귀사를 초대합니다.

(재)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문의처 대외협력팀(041-930-1433)

이메일 kkm8155@korea.kr



공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